

2017년 9월 24일 "찾아오신 예수님(43) 수난의 자리에서" 요 18:13-14, 19-24

<도입>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능동적인 태도를 많이 취하셨습니다. 어디서든 주로 당신 뜻을 가지고 행하셨고,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일들을 주도하셨습니다. 본문 20-21 절은 당신이 주도적으로 사역하셨고, 그 책임도 당신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감람산(겻세마네)에서 이런 주도적 행동들은 정지되고 수난의 수동적 자리로 넘겨지십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통제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수동적 상황이 닥치면 언짢아지고,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시다. 이러한 수동적 자리에서 주님은 무엇을 이루시는지 살펴겠습니다.

[1] 수동적 자리

누구의 삶에도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자리에서 계획한 대로 이루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때 자부심과 가치를 느낄 것입니다. 반면, 내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자리든지, 외부의 압력에 꼼짝 못하는 처지가 된다면 자부심과 존재감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수동적인 삶의 측면은 실패이며, 그것이 없어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가? 이런 의문에 대해 예수님 수난은 심오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도 피조물에게 잡히고, 수모와 폭행을 당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은 실패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은 아님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난을 받으실 때 인내하심이 드러난 탁월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이 아닌 수난 속에서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때는 십자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였고 거기서 구속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2] 아담(헨리 나우엔)

헨리 나우엔은 명성 높은 신학 교수로서 살다가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장애인 공동체, 데이브레이크를 섬겼습니다. 그는 거기서 Adam Arnett 라는 25세 중증 장애인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돕고 도움을 받는 관계가 맺어졌고 이 관계는 아담이 죽을 때까지 10년 계속 됩니다. 나우엔은 아담이 죽자 그로부터 얻은 복음의 통찰을 담아 '아담'(IVP)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복음의 본질과 축복은 인간의 무엇을 통해 전달되고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줍니다.

아담은 모든 일상을 돌보아주는 사람에게 철저히 의존해야 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으로 찬 수동적 삶이었죠. 그러나 나우엔은 그로부터 마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만, 곧 당신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은 쓸모 없고 짐이 될 뿐입니다' 이것은 1차적 메시지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나우엔은 그로부터 자신이 찾던 궁극적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는 신학 교수로서, 사제로서, 또 사역을 통해 인생의 참된 안식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거룩한 학문과 삶도 세상이 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지 못함을 발견했습니다. 즉, 세상의 개인주의, 물질주의가 추구하는 성공을 찾는 것과 같은 또 하나의 종교라는 평면적 삶이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우엔은 아담의 고난의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의 수난의 신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께는 손을 댈 수 없었지만, 아담을 목욕시키고 이를 닦아주며 그에게 손을 대고 만졌습니다. 이것이 주된 섬김이었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자기 옷 가에 손대기를 허락하셨던 **막 6:56** 이 들렸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구원, 안식을 얻다) 결국 아담이 나우엔에게 안식을 제공해준 것입니다. 나우엔의 섬김이 주체인 것 같은데, 아담이 안식을 제공하는 주체였습니다. 그토록 큰 축복을 얻은 나우엔에게 아담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3]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마 25:40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자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는다(다른 표현은 안식을 얻음)고 합니다. 이것은 작은 자를 보살피고 섬길 때 얻는 축복을 말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중에 자신에게 오는 축복이 더 크다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자 안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가치를 만날 때 얻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수난이 죄를 위한 대속을 넘어 안식을 제공하는 능동적 자리라는 측면을 보게 합니다. 수난의 신비로운 의미를 만나야 합니다. 수난 속에 처한 예수님(‘작은 자’)을 섬길 때 역설적으로 가장 약한 곳에서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짐을 알게 됩니다.

내가 수난을 만날 때에 수동적 자리를 인위적으로 벗어나려고 애를 쓸수록 약해집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통과해야 할 터널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강해집니다.

고후 6:8~10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바울의 상황 속에서 수난의 신비를 발견해 보십시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 예, 갑자기 닥친 질병, 고통, 고뇌, 실패의 자리에서조차도 사도 바울의 천명에서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축복과 안식의 비밀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비밀을 삶의 실전에서 깨닫고 발견하면 인생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수난에 대한 원론적인 성격을 묵상하시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 수난에 나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가져야 할 가를 터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나우엔이 아담에게서 들은 마음의 메시지, ‘당신들이 나를 둘러싸고 ... 될 뿐입니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당신의 통찰을 나누어 보십시오.
2. 나우엔은 아담을 향해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졌을 때 그로부터 참 안식을 얻었을까요? 아담은 자신에게, 또 나우엔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소중한 존재이지만 장애로 인해 가치를 잃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장애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궁극적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무엇이 상위에 있습니까?)
3. 예수님의 수난은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큰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작은 자(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식, 어려움에 처한 이웃, 가난한 자들...)를 섬긴다는 삶의 실제적인 의미를 찾아 보십시오. 기독교의 이 비밀을 당신은 믿습니까? 자신의 직/간접 경험이나 간증을 나누어 봅시다.